

#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노동조정<sup>1)</sup>

## I. 서론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moonkim@kipf.re.kr)

- 1) 본 원고가 발전되도록 유용한 고멘트를 해주신 원내 업무회의 참석자, 재정포럼 편집위원회, 익명의 검토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통계적 오류나 오탈자 등은 저자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 2) 통계청의 고용동향 보도자료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9 시기의 전년(동월) 대비 업종별 취업자 증감률은 다음과 같다(통계청, 2011. 1. 12; 2020. 7. 15. 참조).

(단위: %)

구분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연간 기준)	코로나19 시기 (2020년 6월 기준)
농·임·어업	-2.2	3.4
제조업	-3.2	-1.5
건설업	-5.0	-3.0
도소매·음식숙박업	-2.4	-6.0
전기·운수·통신·금융업	-0.9	0.6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 등	4.6	0.6

외부 경기충격이 발생할 때 기업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 수준을 조정하게 된다. 노동은 특히 단기에 기업이 조정할 수 있는 생산요소이기 때문에, 경기충격에 대한 노동투입 변화는 기업의 조정행위를 즉각적으로 드러낸다. 이때 기업의 노동 조정 범위는 고용량,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노동조정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경기충격으로 인한 노동시장 위축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당국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의 노동조정 행위가 어떠한 업종에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해당 업종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업종별로 인력구조가 상이한 상황에서 어떠한 업종은 여러 노동조정의 기제 중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다른 업종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노동조정을 하여 단기적 경기충격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당국이 시장에서 채택되는 기업의 조정기제를 사전에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제도 등의 설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 경기충격으로 인한 산업별 노동조정 행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기업노동 행위에 대한 이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에 따른 기업의 노동조정 행위를 예측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시기의 경제 내 노동정책의 유형과 실행 정도, 경기 상황, 경기충격의 성격 등이 상이해서 직접적인 정책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sup>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량,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이 일반적인 기업의 노동조정 기제라는 점에서 본고의 내용이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노동·고용 정책을 구상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존재할 것이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이후에 사업체의 행태가 고용량, 임금, 근로

시간, 고용형태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개별 기업의 노동 조정 행위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고용량,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마이크로 기업 데이터를 입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초기단계 연구로서 대부분류 업종과 규모별로 구분한 집계자료를 통하여 분석단위별 평균적인 노동조정의 수준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기위기 이후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 기존 국내 문헌에서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같이 고려하여 그러한 경제위기의 노동시장 영향 수준을 분석하였다. 김준(2015)에서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대응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 김준(2015)은 외환위기 기간에는 정리해고제의 시행 및 파견근로제 도입을 통한 대규모 고용조정과 노동의 유연화가 이루어진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기업과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 대응을 했다고 판단한다. 강순희(2018)는 외환위기 직후와 국제금융위기 직전 청년코호트의 노동시장 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 구직정보 수집방법, 취업 소요기간, 취업 준비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외환위기 직후의 청년 노동시장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청년 상황보다 더 열악했다고 결론 내린다.

외환위기 이후의 노동시장 특징을 분석한 연구로 김대일(2007)이 있다. 김대일(2007)은 외환위기 이후에 실업 증가, 고용창출 기반 약화, 임금격차 확대, 대립적 노사관계 지속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노동 시장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차유경·원숙연(2014), 차운아·정태훈(2015) 등이 있다. 차유경·원숙연(2014)은 2007년과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종류 및 중요성 등이 2008년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차운아·정태훈(2015)은 노동시장 미스매치 지수를 측정하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도래시점인 2008년 후반에 미스매치 지수가 높아졌다가 2009년 후반 이후에는 미스매치 지수가 낮아졌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의 고용량,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의 측면에서 노동조정에 대해 단독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으며 그런 점에서 본 연구가 기존 문헌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사료된다.

**기업의  
노동조정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경기충격으로 인한  
노동시장 위축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당국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집계자료를 구성하여  
고용량 측면의  
노동조정을 살펴본다.

## II. 분석자료

### 1. 노동조정 정보 관련

본고의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이후의 고용량,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측면의 노동조정에 대한 연구이므로 분석자료는 우선 전술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야 하며, 자료 제공범위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통계조사로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사업장의 임금 대장에 기반하여 매년 6월에 실시되는 통계조사이다. 해당 조사에는 조사 대상 사업체의 특성과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특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즉, 근로자의 소정임금, 초과근로임금,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고용형태 등에 대한 정보가 존재한다. 특히,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 보유한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른 통계조사에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이다.<sup>3)</sup> 나아가, 고용형태 측면에서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다른 조사통계와 달리 상대적으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다수의 고용 관련 통계조사가 종사상지위(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정보만을 제공하는 반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고용형태’를 ① 특수형태, ② 재택/가내, ③ 파견, ④ 용역, ⑤ 일일, ⑥ 단시간, ⑦ 기간제, ⑧ 기간제 아닌 한시직, ⑨ 정규직 등으로 구분하여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본고에서 살펴보자 하는 노동조정의 네 가지 기제인 ‘고용량, 임금, 근로 시간, 고용형태’ 중에서 ‘고용량’ 측면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원자료(마이크로 단위) 형태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전수조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sup>4)</sup>

3) 예를 들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월별조사에서는 월별 근로시간 문항이 존재 하지만 이는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이 모두 합해진 값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조사 되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임금’으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 각각에서 발생하는 임금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4) ‘고용량 조정’ 측면만 분석한다면 고용보험 DB 혹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할 수 있겠으나, 근로시간이나 ‘고용형태’ 측면도 같이 검토하고자 하므로 본고에서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사업체가 소속된 업종과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집계자료를 구성하여 ‘고용량’ 측면의 업종×규모 단위별 노동조정을 살펴본다. 현재 공개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사업체의 산업대분류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체 규모는 상용직 근로자 기준 네 개의 유형(① 5인 미만, ② 5~29인, ③ 30~299인, ④ 300인 이상) 정보를 제공한다. 본고에서 고려되는 산업코드는 총 13개이기 때문에 기준의 코드유형 네 가지를 함께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집단 개수는 총 52개이다.

그렇지만, 산업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체가 표본에 포함되지 않거나 회귀분석을 수행하기에 관측치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52개보다 적은 수의 집단에 대한 집계자료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집계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조정 결과를 분석할 때 ‘노동조정의 주체’를 개별 사업체가 아닌 집단 전체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결과를 해석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sup>5)</sup> 개별 기업의 노동조정 행위에 대한 분석내용이 더욱 흥미롭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집단 단위별로 고용량이 어떻게 조정되었고, 고용된 근로자 집단의 근로시간,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형태 등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그 자체로 의미는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료 구축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분석기간의 경우 2006~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다.<sup>6)</sup> 분석기간을 2014년까지 고려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노동조정에 대한 장·단기 효과를 살펴보고자 함이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사업체 업종정보가 2006~2008년까지는 8차 산업코드분류를 따르는 반면, 2009~2014년까지는 9차 산업코드분류를 따르는 만큼 일치된 산업코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세부 업종코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별 주요 개정 내용’<sup>7)</sup>을 참고하여 통일된 대분류 정보를 도출하고자 했다.

## 2. 글로벌 금융위기 변수 구성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노동조정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 대한 지표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업종별로 경험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당기순이익 변화율을 활용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사업체의 매출액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2006~2010년 기간의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기업활동조사는 행정구역, 산업대분류, 산업중분류, 사업체 수, 자산, 자본, 매출, 당기순이익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사업체단위’ 조사이기 때문에 데이터 간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고에서 분석할 기업활동조사의 조사 대상도 업체 수가 1개인 기업에 한정하였다.<sup>8)</sup>

5) 몇 가지 문제점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집단(특정 산업 혹은 특정 규모)에 사업체가 진입하거나 퇴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계자료 단위의 ‘노동조정’은 사업체의 구성효과(composition effect)를 반영한다. 또한, 집단별 노동조정이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충격의 노동조정 효과에 대한 추정치를 과소 혹은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6)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가 2011년 혹은 2012년까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만약 그러한 지적이 맞다면, 2014년까지의 통계자료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2013~2014년 시점에서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7) 본고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직·산업 코드화 Technical Report: 12~13차(2013)의 <참고 3> 표를 참고하여 8~9차 연계 산업대분류 코드를 생성하였다. 관련 정보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8) 기업활동조사는 기업식별코드를 제공하여 동일한 기업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매출이나 당기 순이익을 비교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시장에서의 기업 성과(당기순이익)를 산업 및 연도별로 집계한 값만을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활용된 ‘글로벌 금융위기’ 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기업성과(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구성(진입 및 퇴출 기업 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근희·표학길(2015)은 기업의 생산성 증가는 존속기업 혹은 시장의 진입퇴출 기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저자들은 기업의 시장 진입·퇴출이 활발하면 생산성이 향상되며 마련인데, 2006~2012년 기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시장 퇴출로 전반적인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지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업종별 총액을  
당기순이익의 변화율로  
정의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반영하는 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기업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의 기업의 시장 성과변수를 업종별로 합산한 후 이렇게 합산된 시장 성과변수의 2006~2007년 평균값(A)과 2009~2010년 평균값(B)의 차분(G)을 계산하였다. 시장 성과변수의 ‘변화율’은 차분(G)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평균값의 평균((A+B)/2)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으로 계산하였다.<sup>9)</sup>

글로벌 금융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변수 선택 차원에서는 시장 성과변수를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시장 성과변수를 계산할 때에 업종별 총액 혹은 업종 내 평균값을 활용할 수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차이를 나타낼 때는 ‘차분’ 혹은 ‘변화율’을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충격지표의 단위를 업종이 아니라 업종 및 규모별 단위로 설정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다음의 이유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지표에서 업종별 총액을 당기 순이익의 변화율로 정의하였음을 밝힌다. 매출 수준은 일차적인 시장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비용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기충격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의 변화율과 당기순이익의 변화율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좋으나, 본고에서는 당기순이익 관련 결과만을 제시한다. 둘째, 시장 성과변수의 기업별 평균값이 아닌 업종 내 총액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나타낼 때 업종 전체에 미치는 충격을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장 성과변수의 기업 평균값을 활용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해당 업종에 대한 충격 외에도 동일한 업종 내 기업 간 경쟁효과를 한꺼번에 반영하는 측면이 강할 것이다.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시장 성과변수의 변화율을 고려한 것은 경기충격으로 인한 시장 성과변수의 업종 내 상대적인 크기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사업체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업종별 지표만을 설정한 것은 ‘기업활동조사’ 자료에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분석 대상과는 달리, 상용직 기준 29인 미만 규모 관측치가 거의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종×규모’별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의 경기충격지수를 생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sup>10)</sup>

9) 변화율의 경우 기준변수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으므로, 전후의 개별적인 수치가 아닌 전후 수치의 평균값을 기준변수로 고려하였다.

10) 글로벌 금융위기 간 지표 비교를 위해서는 [부도 1]을 참고 할 수 있다.

### 3. 기초통계량

기본적인 기초통계량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1>에서는 사업체 규모별 고용량, 소정임금, 초과임금,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등을 보여주고 있다. 본 통계량은 2006~2014년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합자료에 기반하여 산업 및 업종별로 집계자료를 구성한 후 해당 자료에 대하여 사업체 규모별 기초통계량을 생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표 1>에서 제시된 통계량은 각 사업체 규모별 통계량이 아닌 각 규모에 속하면서 관측 가능한 업종별·연도별 평균값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11)</sup> 이 때문에 표에 제시된 수치 자체만으로는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체 규모 혹은 고용형태별 비교 수치를 중심으로 기초통계량을 검토하고자 한다.

<표 1>의 각 항목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표 1>의 주를 참고할 수 있다. 규모별 변수의 패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규직 고용인원(항목2)은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데 반하여 비정규직 고용인원(항목3)은 5인 미만 사업체에서 그 규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비율(항목4)은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늘어난다. 분석 단위별 평균임금(항목5)은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한다. 평균 근로시간(항목6)은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근로시간은 줄어든다. 5인 미만 사업체의 평균 근로시간(42.21시간)은 30~299인 사업체의 평균 근로시간(43.36시간)과 30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근로시간(41.70시간)의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다. 총임금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평균 임금률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체의 평균 임금률(12.32%)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임금률(26.67%)의 5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의 항목8~14까지는 상대적인 ‘비중’에 대한 지표를 보여준다. 전체 근로자 임금 중에서 초과근로 수당이 차지하는 임금의 비중(항목8)은 대체로 5인 미만(0.81%)에서 30~299인(3.30%) 사업체 규모에 이를 때까지 높아지다가 300인 이상(2.83%)에서 다소 낮아지는 역U자 패턴을 보인다. 전체 근로시간 중에서 초과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중(항목9)이나 전체 근로자 중에서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비중(항목10)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증가한다.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각각 계산할 때에도(각 항목11, 항

<표 1>에 제시된  
통계수치만으로는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어  
사업체 규모 혹은  
고용형태별  
비교 수치를 중심으로  
기초통계량을  
검토하였다.

11) 예를 들어, 5인 미만 금융업이 관측되지 않았다면, 이는 해당 평균치에는 그러한 업종이 배제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에서는  
사업체 업종별  
집계자료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목12)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한다. 고용형태별로 초과근로 비중(인원)을 살펴보면, 대체로 정규직 내에서의 초과근로 비중(인원)은 높은 편이나 5~29인,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고용형태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초과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경우 비정규직 집단이 정규직 집단보다 더 높은 편이다.

**<표 1> 집계자료 기초통계량: 사업체 규모별**

(단위: 명, 천원, 시간, %)

사업체 유형	1	2	3	4	5	6	7
	총고용	정규직 고용 (인원)	비정규직 고용 (인원)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 임금률
5인 미만	12,052	7,811	4,240	3.95	2,049	42.21	12.32
5~29인	13,835	11,502	2,333	8.90	2,842	44.27	16.34
30~299인	15,479	13,199	2,280	10.57	3,557	43.36	20.81
300인 이상	17,146	14,038	3,108	11.23	4,386	41.70	26.67
사업체 규모	8	9	10	11	12	13	14
	초과근로 비중 (임금)	초과근로 비중 (시간)	초과근로 비중 (인원)	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인원)	비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인원)	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시간)	비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시간)
5인 미만	0.81	1.03	6.57	6.44	4.16	0.96	0.75
5~29인	1.53	1.90	14.30	14.04	14.75	1.85	2.03
30~299인	3.30	4.20	27.71	30.07	20.59	4.48	3.27
300인 이상	2.83	4.22	31.63	31.53	31.01	4.11	4.63

- 주: 1. 항목1~14: 산업과 규모별로 구성한 집계자료 기반(가중치 적용)에 대하여 사업체 규모별로 계산한 변수별 평균값을 계산한 것임  
 2. 항목5: '임금이란 소정임금, 초과임금, 성과급(작년도 성과급을 12로 나눈값) 합계를 의미(월별)  
 '평균임금'은 분석단위별 임금의 총액을 분석단위별 근로자수로 나눈 값'  
 3. 항목6: '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의 합계를 의미(주별). '평균 근로시간'이란 분석단위별 근로시간의 총액을 분석단위별 근로자수 총합으로 나눈 값  
 4. 항목7: '평균 임금률'이란 분석단위별 임금의 총액을 근로시간의 총액으로 나눈 값  
 5. 항목8: '초과근로 비중(임금)'이란 분석단위별 초과근로 수당 총액이 임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6. 항목9: '초과근로 비중(시간)'이란 분석단위별 초과근로시간 합계가 근로시간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7. 항목10: '초과근로 비중(인원)'이란 분석단위별 초과근로시간이 관찰되는 근로자 합계가 근로자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8. 항목11: '정규직 초과근로 비중(인원)'이란 정규직 근로자 내에서의 초과근로 비중(인원)  
 9. 항목12: '비정규직 초과근로 비중(인원)'이란 비정규직 근로자 내에서의 초과근로 비중(인원)  
 10. 항목13: '정규직 초과근로 비중(시간)'이란 정규직 근로자 내에서의 초과근로 비중(시간)  
 11. 항목14: '비정규직 초과근로 비중(시간)'이란 비정규직 근로자 내에서의 초과근로 비중(시간)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6~2014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lt;표 2&gt; 집계자료 기초통계량: 사업체 업종별

사업분류	총고용	정규직 고용 (인원)	비정규직 고용 (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 임금률	(단위: 명·천원·시간 %)					
								초과근로 비중 (시간)	초과근로 비중 (인원)	초과근로 비중 (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시간)	정규직 비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시간)
농·임·어업	154	137	17	7.7	3,997	41.2	97.7	1.3	1.4	21.3	0.0	1.4	0.0
전기· 기기설	223	212	11	17.3	4,275	44.6	97.8	4.1	6.3	38.6	40.1	9.8	6.3
오락·문화 ·야가업	2,473	1,410	1,063	3.1	2,533	43.2	58.8	3.5	3.5	25.1	28.4	19.4	3.9
부동산 ·임대업	5,567	4,144	1,422	8.4	2,374	48.5	50.0	1.5	1.6	13.8	14.3	9.8	1.7
교육 서비스업	7,989	4,628	3,360	2.1	2,801	35.4	80.3	1.0	1.3	10.4	12.8	6.3	1.3
통신업	10,158	9,100	1,059	11.6	3,362	42.3	79.5	1.7	2.6	19.4	18.8	22.9	2.5
운수업	11,254	10,351	903	16.5	3,267	43.5	75.5	2.7	3.4	19.4	18.2	24.5	3.1
숙박· 음식점업	12,643	6,488	6,155	2.6	2,187	46.3	47.5	3.8	4.8	28.6	29.0	25.9	4.9
건설업	14,000	9,908	4,092	5.8	3,437	41.4	83.5	1.4	2.1	11.5	11.8	14.6	2.1
금융업	17,553	14,684	2,869	7.2	4,725	41.4	114.6	1.5	2.3	24.1	25.1	17.8	2.4
광업· 제조업	17,684	15,168	2,516	16.5	2,837	44.1	65.1	1.7	2.3	15.1	15.6	10.4	2.3
도소매업	32,345	26,173	6,172	8.6	2,974	44.6	67.6	1.6	2.6	17.9	16.3	26.0	2.4
사업 서비스업	39,911	34,245	5,666	9.2	3,224	42.2	76.7	1.5	2.2	17.2	17.2	17.5	2.3

주: 항목별 정의는 &lt;표 1&gt; 참고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6~2014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1]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당기순이익 변화율로 정의하고, 변화율의 크기에 따라 노동조정 관련 변수가 2007년과 비교해 2010년에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표 2>에서는 사업체 업종별 집계자료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비율(항목4)은 전기·가스업, 운수업, 광업에서 높게 나타나고, 오락·문화·여가업, 교육서비스업, 수바·음식점업에서 낮게 나타난다. 평균임금(항목5)은 금융업, 전기·가스업, 농·임·어업, 건설업 등이 높고,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오락·문화·여가업 등에서 낮게 나타난다. 평균 근로시간(항목6)이 가장 높은 업종은 부동산·임대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업 등이고, 가장 낮은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농·임·어업, 건설업 등이다. 임금률이 낮은 업종은 평균임금은 낮고 평균 근로시간은 긴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등이며, 임금률이 높은 업종은 평균임금은 높고 평균 근로시간은 짧은 금융업, 농·임·어업 등이다.

전기·가스업의 경우 평균 근로시간이 높은 만큼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나타난다. 임금, 시간, 인원으로 계산된 초과근로 비중은 전기·가스업에서 다른 업종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전기·가스업의 경우 정규직 내에서의 초과근로 비중(인원)이 40.1%, 비정규직 내에서의 초과근로 비중(인원)이 9.8%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업종의 초과근로 상당 부분이 정규직 근로자에 의해 수행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평균 근로시간이 낮은 만큼 초과근로 비중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교육서비스업 종사 정규직 근로자의 초과근로 비중(인원)은 12.8%로 비정규직 근로자 초과근로 비중(인원, 6.3%)의 약 2배에 해당한다.

#### 4. 노동조정 관련 데이터 패턴

[그림 1]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당기순이익 변화율로 정의하고, 이러한 변화율의 크기에 따라 고용량, 근로시간 등 노동조정 관련 변수가 2007년 대비 2010년에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횡축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 정도를, 종축에는 노동조정과 관련한 관심변수의 2007년과 2010년 격차 수준을 나타낸다. 당기순이익 변화율이 음(-)의 값인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수준이 큰 것으로, 양(+)의 값인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수준이 작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축의 노동조정 관련 변수의 값이 0보다 크면 해당 변수가 2007년 대비 2010년에 증가한 것으로, 0보다 작으면 해당 변수가 2007년 대비 2010년에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그림 1]은 단순통계량을

도식화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그림 1]의 (a)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 총근로자 수격차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클수록(당기순이익 변화율의 값이 음(-)의 값을 가질수록) 고용인원의 변화율이 거의 없고, 금융위기의 충격이 0에 가까울수록(당기순이익 변화율의 값이 0의 값을 가질수록) 고용인원이 2007년 대비 2010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증가한 경우에도 고용인원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금융위기 충격과 고용인원 간의 그래프가 완만한 역U자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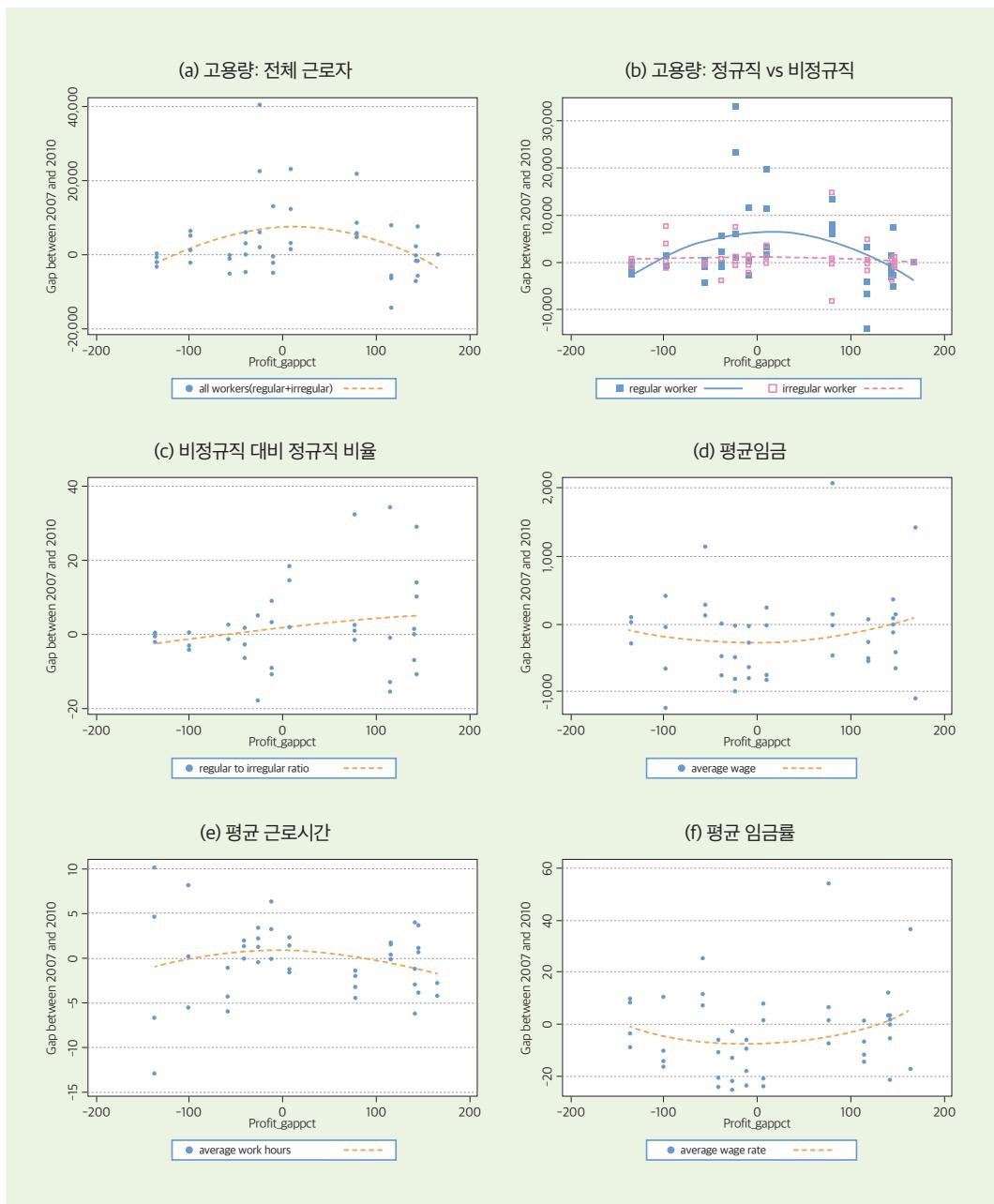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보통 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림1]의 (a)에서 관찰되는 역U자가 정규직 근로자의 패턴과 일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림 1]의 (b)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 고용인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 수준과 상관없이 거의 변동하지 않은 반면에, 정규직 고용인원은 완만한 역U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림1]의 (c)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 따른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비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기 충격 정도가 클수록 정규직 비율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사업체가 노동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의 (b)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노동조정은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늘리기보다 정규직 근로자를 줄여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1]의 (d)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평균임금(소정임금+초과근로 수당+특별성과급)이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당기순이익 변화율이 0에 가까울수록 평균임금이 줄어들고, 당기순이익 변화율이 음(-) 혹은 양(+)의 값을 가질수록 평균임금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즉 U자형 패턴). 반면, [그림1]의 (e)에서 확인되는 ‘근로시간’의 변화는 평균임금의 데이터 패턴과 달리 역U자형 패턴을 보인다. 즉, 당기순이익 변화율이 0에 가까울수록 근로시간은 변화하지 않지만 당기순이익 변화율이 0에서 멀어질수록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평균 임금률은 [그림1]의 (f)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완만한 역U자형 패턴을 보인다.

**[그림 1]의  
(b)와 (c)를 보면  
노동조정은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융위기 충격 정도가  
클수록 정규직 비율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사업체가 노동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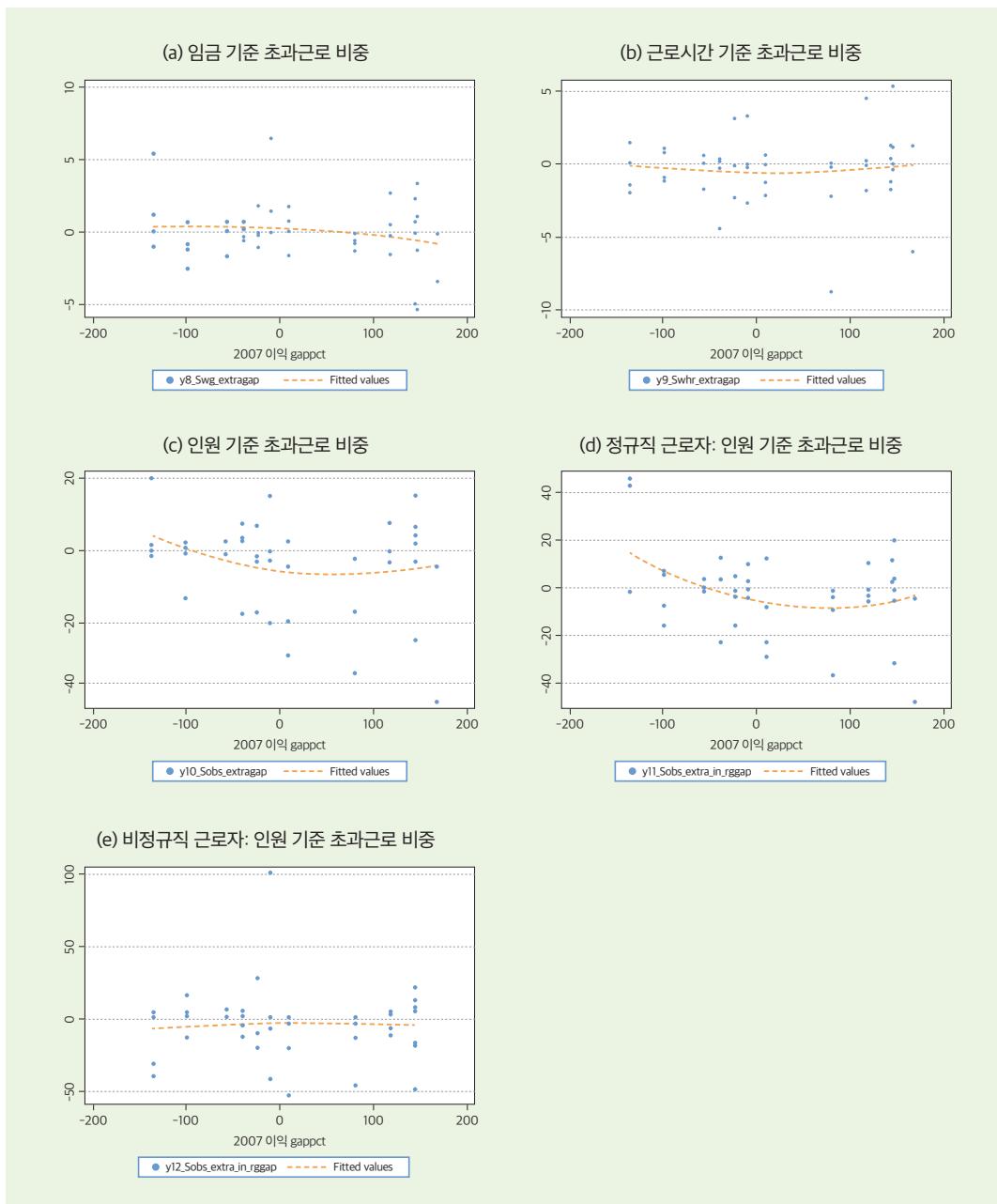
[그림 1]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 정도와 노동조정 수준 (1)



주: 각 그래프의 횡축은 2006~2007년 기간과 2009~2010년 기간 간 당기순이익 변화 비율(%)로 계산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수준이며, 종축은 각 해당 변수의 2007년간 2010년간 변화 수준을 의미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7; 2010 및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006~2007; 2009~2010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가공

[그림 2]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 정도와 노동조정 수준 (2)



주: 각 그래프의 횡축은 2006~2007년 기간과 2009~2010년 기간 간 당기순이익 변화 비율(%)로 계산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수준이며, 종축은 각 해당 변수의 2007년간 2010년간 변화 수준을 의미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7; 2010 및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006~2007; 2009~2010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가공

**당기순이익  
지표의 특성상  
노동조정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인과적 결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2]에서는 초과근로 비중 지표와 당기순이익 변화율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먼저, [그림 2]의 (a), (b), (c)는 각각 임금, 근로시간, 인원을 기준으로 초과근로 비중을 계산한 것이다. 대체로 당기순이익 변화율이 음(-)의 값에서 0으로 변화할 때 이러한 초과근로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관찰된다. 반면, 당기순이익이 0에서 양(+)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임금 기준 초과근로 비중([그림 2]의 (a))은 더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근로시간 및 인원 기준 초과근로 비중은 ‘감소’ 추세에서 ‘변동 없음’ 추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임금 기준 초과근로 비중이 당기순이익 변화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그림 2]의 (a))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초과근로를 통한 노동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보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인원 기준 초과근로 비중이 근로시간 기준 초과근로 비중에 비하여 변화 폭도 크고 당기순이익 변화율과의 음(-)의 관계를 더 뚜렷하게 보인다는 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사업체들이 초과근로 종사 인원을 줄이고 초과근로가 필수불가결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늘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그림 2]의 (d)와 (e)에서는 각각 정규직 근로자 집단과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 내에서의 인원 기준 초과근로 비중을 보여준다. 당기순이익 변화율이 음(-)의 값에서 0으로 변화할 때 정규직 근로자 집단의 초과근로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뚜렷한 패턴이 관찰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의 (c)와 연관지어 생각해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당기순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초과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비중을 낮추었고, 이때 초과근로 종사인원 감소 전략이 정규직 근로자 집단에 주로 적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당기순이익 변화율로 측정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 지수와 노동조정 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고용형태, 임금, 근로시간 등의 여러 측면에서 노동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검토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이라는 지표의 특성상 이러한 노동조정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인과적 결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당기순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값이고 이때의 ‘비용’에 노동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1]~[그림 2]에서 검토한 노동조정 변수의 변화는 당기순이익

변화율의 결과가 아닌 원인일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사업체의 노동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2008~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인하여 2006~2007년 대비 2008년 이후부터 2014년 기간의 노동조정이 이루어졌는지, 만약 노동조정이 이루어졌다 면 어떠한 기제를 통하여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당기순이익**  
**변화율로 정의하고,**  
**이렇게 정의된 변수에**  
**따른 노동조정 수준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포착되는지를**  
**검토한다.**

### III.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 1. 분석방법

본 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당기순이익 변화율로 정의하고, 이렇게 정의된 변수에 따른 노동조정 수준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포착되는지를 검토한다. 구체적인 계량모형은 다음과 같다.

$$y_{jt} = \beta_0 + \beta_G GFC_j I(t \geq 2008) + \mu_t + \delta_j + \varepsilon_{jt} \quad \text{식 (1)}$$

여기에서  $j$ 는 기본적인 분석단위로, 각  $j$ 는 <표 1>에서 제시된 사업체 규모유형과 <표 2>에서 제시된 산업유형의 특정 결합(규모×산업)을 의미하며,  $\delta_j$ 는 분석단위별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t$ 는 2006~2014년 기간의 연도를 의미하며,  $\mu_t$ 는 연도별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varepsilon_{jt}$ 는 독립항등분포(identically independently distributed)를 따르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I(\cdot)$ 은 괄호 안의 내용이 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지시함수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은 당기순이익의 변화율로 정의한다. [그림 2]와 [그림 3]에서는 당기순이익의 변화율의 부호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회귀분석을 수행 할 때는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당기순이익 변화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경우, 해당 변화율의 절댓값’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지수로 활용하였다. 즉, 식 (1)에서의  $GFC$  (global financial crisis)는  $abs(\text{당기순이익변화율}_{\text{산업}j} < 0)$ 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text{산업}_j$ 는  $j$ 가 속한 산업유형을 의미한다.

**정규직 비율,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이  
2012~2013년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지표를 기간별로 구분한 다음의 회귀식도 검토한다.

$$y_{jt} = \beta_0 + \sum_{k=1}^4 \beta_{G,k} I(t \in C_k) GFC_j + \mu_t + \delta_j + \varepsilon_{jt} \quad \text{식 (1')}$$

여기에서  $C_k$ 는 4개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시점을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2008~2009년( $C_1$ ), 2010~2011년( $C_2$ ), 2012~2013년( $C_3$ ), 2013~2014년( $C_4$ )으로 구분하였다(준거 기간 = 2006~2007년). 마지막으로 종속변수  $y_{jt}$ 를 <표 1>과 <표 2>에서 정의된 14가지 변수로 상정한다.

## 2. 분석결과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의 열(1)~(14)는 식(1)에 따른 추정 결과를, 열(1t)~(14t)는 식 (1')에 따른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당기순이익의 변화율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지수로 사용한 <표 4>의 결과를 살펴보자. 먼저,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GFC_j$ 의 변수가 당기순이익 변화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경우에 만 절댓값으로 전환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beta_G$ 가 양(음)의 값을 갖는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지수가 클수록 종속변수의 값이 증가(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의 열(1)~(14)를 살펴보면, 14개의 어떠한 종속변수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단, 시점 구간별 효과를 보여주는 열(1t)~(14t)에 따르면, 2012~2013년 기간의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비율,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이 2006~2007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당기순이익 변화율이 2006~2007년의 평균치에서 2009~2010년의 평균치를 제한 값을 활용하여 정의된 사실을 상기한다면, 해당 시점 데이터를 분석 표본에서 제외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노동 조정이 사후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정량분석의 주요 목적이므로 2008~2009년 자료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 결과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분석결과 2012~2013년 기간의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lt;표 3&gt; 분석결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당기순이익 변화율로 포착한 경우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총고용	정규직 고용 (인원)	비정규직 고용 (인원)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 임금률	초과근로 비중 (임금)	초과근로 비중 (시간)	초과근로 비중 (인원)	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인원)	비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인원)	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시간)	
2008년 이후 $\times GFC_j$	-16.42 (53.97)	-3.267 (43.20)	-13.15 (16.86)	-0.0276 (0.0309)	-2.897 (1.87)	-0.00951 (0.00872)	-0.0228 (0.0433)	0.00335 (0.00516)	0.00375 (0.00691)	0.00145 (0.0374)	0.0246 (0.0389)	0.00469 (0.0552)	0.00628 (0.00701)	0.00272 (0.0108)
관측치(건)	399	399	399	390	399	399	399	399	399	399	390	399	399	390
$R^2$	0.071	0.069	0.072	0.040	0.124	0.583	0.342	0.029	0.035	0.051	0.051	0.068	0.035	0.038
집단 수(개)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구분	(1t)	(2t)	(3t)	(4t)	(5t)	(6t)	(7t)	(8t)	(9t)	(10t)	(11t)	(12t)	(13t)	(14t)
	총고용	정규직 고용 (인원)	비정규직 고용 (인원)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 임금률	초과근로 비중 (임금)	초과근로 비중 (시간)	초과근로 비중 (인원)	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인원)	비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인원)	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시간)	비정규직 초과근로 비중 (시간)
2008~2009년 $\times GFC_j$	-7.253 (67.50)	0.216 (53.96)	-7.468 (21.11)	-0.0117 (0.0385)	-0.192 (2.260)	-0.00654 (0.0109)	0.00781 (0.0542)	0.00377 (0.00645)	0.00633 (0.00864)	0.0345 (0.0467)	0.0719 (0.0485)	0.0388 (0.0690)	0.0103 (0.00875)	0.0100 (0.0135)
2010~2011년 $\times GFC_j$	-0.324 (67.50)	14.77 (53.97)	-15.09 (21.11)	-0.0105 (0.0384)	-3.173 (2.261)	-0.0106 (0.0109)	-0.0294 (0.0542)	0.00107 (0.00645)	-0.00316 (0.00864)	-0.0254 (0.0467)	0.00202 (0.0485)	-0.0148 (0.0690)	-0.00138 (0.00875)	0.00279 (0.0135)
2012~2013년 $\times GFC_j$	-56.56 (67.51)	-44.84 (53.97)	-11.72 (21.12)	-0.0718* (0.0385)	-5.144*** (2.261)	-0.0195* (0.0109)	-0.0445 (0.0542)	0.00513 (0.00645)	0.00689 (0.00864)	0.0127 (0.0467)	0.0233 (0.0485)	0.00105 (0.0590)	0.00833 (0.00875)	-0.00338 (0.0135)
2014년 $\times GFC_j$	13.34 (82.67)	36.82 (66.10)	-23.49 (25.86)	-0.00294 (0.0484)	-3.261 (2.769)	0.00674 (0.0664)	-0.0277 (0.00790)	0.00354 (0.0106)	0.00613 (0.0573)	-0.0335 (0.0594)	-0.0224 (0.0668)	-0.0191 (0.0107)	0.00334 (0.0170)	-1.44e-06
관측치(건)	399	399	399	390	399	399	399	399	399	399	390	399	399	390
$R^2$	0.074	0.074	0.073	0.051	0.136	0.588	0.344	0.030	0.040	0.057	0.060	0.070	0.041	0.041
집단 수(개)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주 1. 식(1)과 식(1')에 대한 추정결과를 의미. 열(1)~(14) (혹은 (1)~(14))에 대한 정의는 <표 1>의 주를 참조

2. 분석단위는 산업 및 규모 유형별 결합단위를 의미하며, 고려한 산업유형은 <표 2>, 규모유형은 <표 1>에 제시되어 있음

3. 각 집계자료 내 관측치가 기증치가 적용된 결과임

4. 모든 회사식에는 상수, 분석단위별 고정효과가 통제된 것임

5.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6~2014 및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009~2010 자료를 기반으로 자자 기공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충격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정규직의  
초과근로시간을  
조정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고용형태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2006~2014년 전체 시점변수를 모두 사용한 결과와 일치한다.

요컨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당기순이익이 음(-)의 변화율을 겪은 경우, 2012~2013년 기간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비율,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을 줄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시간당 임금(임금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의 감소는 근로시간의 감소로 인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초과근로 가능성이 낮고 근로시간 자체가 정규직보다 짧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감소’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비율’의 감소현상 때문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표 3>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인한 이러한 노동조정의 결과가 2010~2011년이 아닌 2012~2013년에 발현된다는 점도 흥미로운 결과일 수 있다. 모형에서 정의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지표가 잘 설정된 것이라면, 이는 곧 경기충격으로 인한 노동조정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의 초과근로시간을 즉각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정규직 내 초과근로 비중 변수를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의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지표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상이 정량분석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정량분석의 결과만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충격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정규직의 초과근로시간을 조정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고용형태를 조정하여 노동비용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sup>12)</sup>

12) 초과근로의 조정으로는 인건비와 같은 노동 관련 고정비용을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인원을 줄이는 것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사업체들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인원이 줄어들에 따라 업무 강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의 초과근로 수요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 IV. 결론

본고에서는 경기불황 시기에 대한 노동조정 행위가 산업 및 규모 유형별 분석 단위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집중하였으며 금융위기 충격지표를 포착하기 위하여 2006~2007년 평균 당기순이익 대비 2009~2010년 평균 당기순이익의 변화율을 정의하였다.

정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로 2012~2013년 기간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가 도출이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비율,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 초과근로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을 상대적으로 더 증원함에 따라 평균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 이러한 정량분석 결과가 합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고용량 자체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코로나19의 경우 사업체 폐업으로 인한 고용량 감소분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균 근로시간의 감소효과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대면서비스 중심 산업 분야의 경우 사업의 운영 자체가 어려워짐에 따라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들의 초과근로 필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또한 초과근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무직의 경우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초과근로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면서 초과근로 가능성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평균 근로시간의 현저한 감소는 평균임금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충격으로 인한 ‘평균임금’ 감소효과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코로나19 시기에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비율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의 방향성이 분명하지는 않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임시직, 일용직 같은 종사상 지위를 가진 근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할 때, 정규직 비중은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시대에 경영방침을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장기적으로 정규직 채용 규모를 큰 폭으로 축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는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정규직 비율이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 정규직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우선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일 것이다. 근로시간이 더욱 줄어들고 이로 인한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로

**코로나19  
경기 충격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고용과 복지 중간영역의  
정책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자들은 기존의 월 소득을 확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구할 수 있다. 현 고용보험제도에서는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제2의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일자리는 과세소득을 양성화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조세수입 운영 측면에서도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 특히, 장기적으로 정규직의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유연한 형태를 고려하는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소득이 가구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sup>13)</sup>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는 가구소득의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 근로소득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가구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상위 소득 가구 간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기에는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고용과 복지 중간 영역의 정책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14)</sup>

보다 설득력 있는 정량분석의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데이터 및 정량분석 설계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고에서는 산업 및 규모 유형별 집계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개별 사업체’의 ‘평균적인 노동조정’ 행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면, 개별 사업체 자료로 분석하는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조정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동일한 산업 및 규모 유형별 분석단위 내에서는 고용조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분석단위(규모×업종) 간 근로자들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노동조정 효과가 과대 혹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 및 정량분석 설계상의 개선을 꾀함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을 고려한 엄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당연하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KPR**

13)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경상소득(약 475만원) 중에서 근로소득이 69.2%(약 330만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SIS,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o?orgId=101&tblId=DT\\_1L9H008](https://kosis.kr/statHtml/statHtml.o?orgId=101&tblId=DT_1L9H008), 검색일자: 2020. 11. 10.).

14) 최제민 외(2018)는 금융위기 이후 총가구소득(근로소득, 이전소득, 사회보험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등을 모두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지니계수가 감소하였으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지니계수는 크게 악화되었음을 지적한다.

### <참고문헌>

강순희, 「대출 청년 노동시장 이행의 코호트 간 비교연구」, 『노동정책연구』, 18(4), 2018, pp. 1~29.

김대일,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경제학연구』, 55(4), 2007, pp. 473~502.

김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질서경제저널』, 18(3), 2015, pp. 68~88.

이근희·표학길, 「기업동학, 자원재분배 및 노동생산성 결정요인: 「기업활동조사(2006~2012)」에 기초한 패널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1(3), 2015, pp. 43~114.

차운아·정태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지수측정」, 『경제연구』, 33(4), 2015, pp. 133~156.

차유경·원숙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작용하는 영향요인-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정책학회보』, 23(3), 2014, pp. 303~328.

최제민·김성현·박상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불평등변화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66(1), 2018, pp. 115~142.

KOSIS,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 o?orgId=101&tblId=DT\\_1L9H008](https://kosis.kr/statHtml/statHtml. o?orgId=101&tblId=DT_1L9H008), 검색일자: 2020. 11. 10.

통계청, 「201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보도자료, 2011. 1. 12.,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244940&pageNo=221&rowNum=10&amSeq=&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244940&pageNo=221&rowNum=10&amSeq=&sTarget=title&sTxt=) 검색일자: 2020. 11. 2.

\_\_\_\_\_, 「2020년 6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2020. 7. 15.,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3865](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3865), 검색일자: 2020. 11. 2.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직·산업 코드화 Technical Report: 12~13 차』, 2013. 1., <https://www.kli.re.kr/klips/selectBbsNttView.do?key=151>

&bbsNo=42&nttNo=101406, 검색일자: 2020. 11. 2.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시자료, 2006~2014, <http://laborstat.moei.go.kr/hmp/cstmrYard/rawDtaReqst.do?menuId=001000110012685266&leftMenuId=0010001100126>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https://mdis.kostat.go.kr/index.do>

###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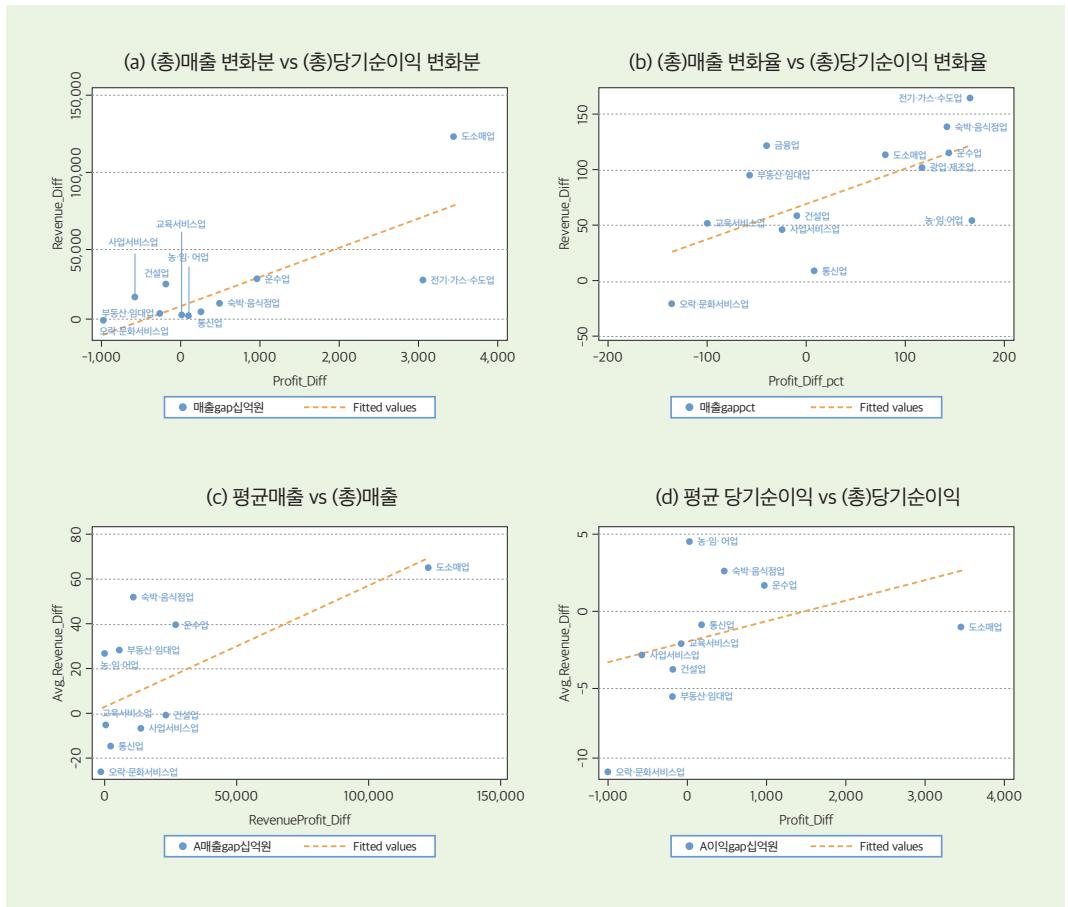
**<부표 1> 본고의 분석에서 정의된 산업대분류**

본고에서 정의한 산업분류	8차 산업분류	9차 산업분류
농·임·어업	A, B	A
광업·제조업	C, D	B, C
건설업	F	F
전기·가스·수도업	E	D
도·소매업	G	G
숙박·음식점업	H	I
운수업	I	H
통신업	J	J
금융업	K	K
부동산·임대업	L	L
보건·사회복지 사업	P	Q
교육서비스업	O	P
오락·문화·서비스업	Q	R
공공행정	N	O
사업서비스업	M	M, N

출처: 저자 작성

### [부도 1]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지수 비교

(단위: 십억원, %)



주: 이상치 제거 차원에서 각 그래프에서 특정 업종을 배제함

(a): 금융업, 광업·제조업 제외

(c), (d): 금융업, 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제외

출처: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006~2007; 2009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